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최경석(강남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본 원칙들의 설정 - 제1차 스톡홀름 “생활과 노동” 운동 세계교회대회

III. 간학문 간 대화로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 옥스퍼드 대회로의 여정

1. 경제공황 이전의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활동
2. 경제공황 이후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활동
3. 사실부합적인 것과 인간부합적인 것의 대화

IV.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준 설정 - 제2차 옥스퍼드 “생활과 노동” 운동 세계교회대회와 제1차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

1. 옥스퍼드 대회 - 제 3분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2. 제1차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 - “책임사회” 구상을 중심으로

V. 나가는 말

• ABSTRACT •

The ecumenical movement plays a crucial role in social ethical discourse.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s (WCC) 10th assembly will take place in Busan in 2013. With this in mind, it is significant to reconstruct early history of the modern ecumenical movement. In the beginning of the movement, people kept an eye on economical problems. The so-called neo-liberal globalization which is the main cause of many economic problems arising in today's world is progressing so rapidly. Rebuilding the early ecumenical movement might lead to the solution to today's economical problems.

In this study, I will deal with a methodology of Christian economic ethics in the early 20th century ecumenical movement. I will discuss the period beginning with the 'First Life and Work Conference' in Stockholm in 1925 until the 'Second Life and Work Conference' in Oxford in 1937. I will conclude with the foundation of WCC and the corresponding Conference in Amsterdam in 1948. The summary will use a two-prong method: Firstly, I will restructure each conference and will emphasize the ecumenical movement in the context of 'Life and Work'. Finally, I will discuss the development of ecumenical economic ethics.

Basic principles of ecumenical economics that are experienced in human existence were set up at the Stockholm conference: love, brotherhood and justice. A continuation committee was organized to prepare for the Oxford conference. In the time between conferences, the interdisciplinary dialogues regarding theology, economics, and social science played a crucial role. Dealing with the Oxford conference, I will reveal the first criterion for the ecumenical economic ethics; a clear refusal of the extreme egoistic liberalistic economic system and the totalitarian communitarian economic system. Dealing with the WCC's 1st assembly in Amsterdam, I will address the second criterion: the vision of a 'Responsible Society'.

Key words : ecumenical movement, economic ethics, economical problem, Life and Work, responsible society

I. 들어가는 말

1910년 6월 14일 영국 에딘버러에서 제1차 “세계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열렸다. 올 해는 에딘버러 대회의 100주년으로 6월 2일부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해 봄, 한국을 방문한 세계교회협의회 회장 소리투아 나바반(Soritua Nababan)은 에딘버러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미래로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한 것”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선교(diaconal mission)의 일치”²⁾의 경험을 세계 교회와 나눌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2013년 부산에서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와 터를 잡은 지 150년이 채 안되었음에도, 한국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리게 됨으로써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이바지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나바반이 말한 “사회봉사선교”는 사회윤리의 담론의 틀에서 언급될 수 있다. 최근 사회윤리적 담론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³⁾ 이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재조명은 매우 유익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⁴⁾

1) Nababan, S., *Mission as an Invitation to the Feast of Life*, 김동수 역, 「선교 생명 잔치로서의 초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세계』 Vol. 239, (서울: 2009), 4.

2) 위의 글, 9.

3)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n zu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 (1848-1955)*, (Bochum: 1993), 284.

4)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에 대한 최근 주목할 만한 글로서 백용기, 「WCC 창립 이전 세계 기독교대회 속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146호, 2009 가을, (천안: 2009), 167-212를 참조하라. 백용기는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창기 대회라고 불리는 에딘버러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창립 이전까지 세계기독교대회 속에서 한국 개신교의 참여, 활동 그리고 한국 개신교에 관한 것들을 역사적 시각으로 고찰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재조명하는 하나의 작업으로서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창기에 인구에 회자되었던 경제 문제를 논하는 것은 오늘날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급속히 발전 되면서 세계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속에서 자본의 극대화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기구는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기독교 경제윤리는 경제관계들의 제도적 측면을 즉시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다.⁵⁾ 본 논문은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입장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론 찾기에 몰두할 것이다.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방법론은 20세기 초의 에큐메니칼 운동들에 터를 잡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운동들의 역사적인 재구성과 그 의미의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20세기 초 에큐메니칼 운동은 크게 세 가지 흐름 속에 존재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세계적 공동체로 되는 데 기여했던 “세계선교대회” 운동이며, 두 번째는 기독교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생활과 노동(Life and Work)”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신념의 차이 내지는 일치를 연구했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흐름은 결국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로 집결되

5) 경제윤리의 발전에 대해서는 Jähnichen, 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Verantwortungsebenen-Handlungsfelder*, (Stuttgart: 2008)을 참조하라. 트라우코트 예니헨(Traugott Jähnichen)은 그 동안의 진행된 경제윤리의 연구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첫째는 경제현상에서 벌어지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교정을 주장하는 유형, 둘째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 윤리가 경제에 기능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은 윤리적 측면과 경제적 합리성 사이를 통합하고 중재하려는 시도의 유형이다. 그가 주장하는 경제윤리는 간학문 간의 하나의 과제로서 경제주체들의 책임감 속에서 윤리와 경제를 논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과거의 경험 속에서 윤리와 경제를 인간부합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제도(Soziale Marktwirtschaft)를 옹호하고 있다.

었다.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활과 노동”운동에서 다루어 졌으며, 이에 대한 제1차 세계대회는 1925년 스톡홀름에서, 제2차는 1937년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는 제3분과에서 이루어졌다. 3번에 걸친 이 대회들과 협의회 속에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앞으로 논의될 에큐메니칼 운동의 경제윤리와 그 방법론은 “생활과 노동”운동으로 국한되고 가끔씩 다른 에큐메니칼 운동과 협업 속에서 그 입장이 추론될 수 있다.⁶⁾ 이 논문의 방향은 역사적인 서술과 동시에 윤리적 입장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II.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본 원칙들의 설정 - 제1차 스톡홀름 「생활과 노동」 운동 세계교회대회

교회는 시대적, 역사적 상황의 특수성 속에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보편성도 함께 가진다. 스톡홀름 세계교회대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교회가 20세기 초에 갖고 있었던 특수한 역사적 과제는 제국주의의 산물인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여기에 상응하는 세계교회의 보편적 흐름은 세계적 책임의 구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확고히 하는 것”⁷⁾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 속에서 교회들 간의 상호 협업은

6) 당시 사회윤리적 담론에 중요한 영향을 부여한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이었다. 이 운동들 속에서 경제제도의 틀 속에서 시장 자본주의와 중앙 계획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제도를 추구하는 것은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서유럽과 북미에서도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서는 Jähnichen, T., *Die “Soziale Markirtschaft” und ihre protestantischen Ursprungslinien*, von Arbeitskreis Evangelischer Unternehmer in Deutschland e. V. (AEU), *60 Jahre Soziale Martwirtschaft*, “...das Prinzip der Freiheit auf dem Markte mit dem des sozialen Ausgleichs zu verbinden.”, (Karlsruhe: 2008), 17, 또한 동저자, 앞의 글 126을 보라.

필연적이었다. 전쟁이 그친 후,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고 이는 세계 선교대회 의장을 역임한 나탄 죄더블럼(Nathan Söderblom)⁸⁾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다. 그는 국제연맹에 “도덕적 보강”을 하고자⁹⁾ 이와 상응한 세계교회대회를 1920년부터 구상했다. 1924년 영국 버밍햄에서 열린 “기독교 정치, 경제, 사회대회(the Conference of Christian Politics, Economics, and Citizenship)”는 스톡홀름 협의회를 위한 준비대회로서, 여기에서 이미 스톡홀름에서 다룰 주제들이 결정되었다. 이 장은 스톡홀름 대회에서 경제 윤리적 입장들에 대한 역사적 서술임과 동시에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인 기본 원칙들을 밝히는 것이다.

1925년 스톡홀름에서 제1차 “생활과 노동” 운동 세계교회대회가 열렸다. 경제윤리 연구를 위해서 ‘두 번째 주요 주제’였던 “교회와 경제 그리고 산업문제”가 중요하다. 윌리엄 M. 에데(William Moore Ede)가 행한 기초 연설에 주제의 근본적인 목표가 담겨있다. 그는 경제 자유주의의 이론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경제현상에 기독교의 영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그러나 기존 경제체제는 유지되어야 하나, 여기에 기독교의 원칙들인 사랑, 자매/형제애(brotherhood) 그리고 정의를 통해 이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¹⁰⁾ 에데가 제시한 기독교의 원칙에 구체성이 결여

7)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To consider Missionary problems in relation of the Non-Christian world). *Report of Commission XI*. Edinburgh: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1910, 141.

8) 나탄 죄더블럼은 스웨덴 옘살라의 대주교였고 20세기 초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에서 교회의 공동과제와 교회의 기본적인 일치로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의 생애에 업적에 대해서는 Stausberg, M., Söderblom, Krause, G., und Müller, 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31, (Berlin/New York: 1977ff), 423-427을 참조하라.

9) Hübner, J., *Globalisierung-Herausforderung für Kirche und Theologie: Perspektiven einer menschengerechten Weltwirtschaft*, (Stuttgart: 2003), 114.

10) Dean von Worcester, *Einführung in das Problem*, Amtlicher deutscher Bericht, Deissmann Adolf, *Die Stockholmer Weltkirchenkonferenz, Vorgeschichte, Dienst und*

되었음에도, 교회의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그것은 복음의 사회적 선포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었다.

경제윤리적 틀에서 ‘두 번째 주요 주제’의 보고서는 중요한 문서로 평가된다. 에데가 언급한 기본 원칙들인 사랑, 자매/형제애 그리고 정의에 대한 표상을 보고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상의 지배적인 힘은 권력, 돈 그리고 사리사욕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강조한다. …… 선한 의지, 협력, 상호간 원조, 봉사 그리고 자기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을 통해서만 인간의 모든 안녕, 또한 모든 도덕적 발전이 장려될 수 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유일한 가족이다. 각자는 아버지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과 실천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인격의 확장이 부보다 더 중요하고, 인간이 돈보다 더 중요하다. 모든 경제문제들에서 인간적인 요소가 물질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할 경우, 그 어떤 제도도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결코 정의롭지 못한 상태에서 만족할 수 없다.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의 불만족성은 정의롭지 못함을 경험한 감정에서 기인한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임금이 실제 벌이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방법도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 자매/형제애 그리고 정의는 영원한 질서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인도하는 사고들이다.”¹¹⁾

기독교적 신념에서 근거한 기본 원칙들은 인간의 성향과 추상적 개념

Arbeit der Weltkonferenz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19-30. August 1925, (Berlin: 1926), 175.

11) *Bericht der Kommission I*, 앞의 책, 64.

에 머물러 있다. 경제 주체적 측면에서 볼 때, 제도나 국가와 같은 수준보다는 개인윤리적 측면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덕이 강조되었다. 교회는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정화시키고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시각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의지를 개선시키는”¹²⁾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 주체들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개인윤리적 성향이 스톡홀름 대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스톡홀름 대회에서 제시된 비전은 에큐메니칼 사회윤리 틀에서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입장으로 보여 지고 있다.¹³⁾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 대회의 사료는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의 중요한 문서라는 점에서, 그리고 스톡홀름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윤리적 담론들이 향후 에큐메니칼 운동에 새로운 동인을 부여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¹⁴⁾ 아울러 스톡홀름 대회는 서구 세계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정의를 찾는 많은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¹⁵⁾

12) 같은 글.

13)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Stierle, W., *Chancen einer ökumenischen Wirtschaftsethik: Kirche und Ökonomie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lobalisierung*, (Frankfurt: 2001), 29 이하를 참조하라. 특히 미국 에큐메니칼 신학자들, 존 C. 베넷(John C. Bennett)과 폴 어브렉트(Paul Abrecht)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베넷은 스톡홀름 대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스톡홀름 대회, 필자주)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던 신학적 차이의 분류였다.” Bennet, J. C., *Breakthrough in Ecumenical Social Ethics, The Legacy of the Oxford Conference on Church, Community, and State (1937)*, the ecumenical review, N.2/1988, Vol. 40, 135; “스톡홀름의 비전은 너무 희미했다.” Abrecht, P., *From Oxford to Vancouver, Lessons from Fifty Years of Ecumenical Work for Economic and Social Justice*, 같은 책, 149.

14) 이런 입장에 대해서 Jähnichen, T., 앞의 글; *Die “Soziale Markirtschaft” und ihre protestantischen Ursprungslinien*, 58; 동저자, 앞의 책;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286 그리고 Raiser, K., *Wir stehen noch am Anfang: Ökumene in einer veränderten Welt*, (Gütersloh: 1994), 63을 참조하라.

15)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창립될 때까지』,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207. 그러나 스톡홀름 대회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독일

스톡홀름 대회, 특히 ‘두 번째 주요 주제’의 보고서에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본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랑, 자매/형제애 그리고 정의”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기본 원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 부합적인 것의 이해가 어떤 경험적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¹⁶⁾ “사랑, 자매/형제애 그리고 정의”는 기독교의 특수한 경험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경험을 포괄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다. 이 기본 원칙들의 규범들이 가지는 그 특징은 아무리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납득할 만한 것이고 표상할 수 있는 규범들이라는 것이다.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본 원칙들은 아르투어 리히의 말을 빌린다면, ‘사랑, 자매/형제애 그리고 정의에서 비롯된 인간성’¹⁷⁾으로서 지칭될 수 있다.

III. 간학문 간 대화로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 옥스퍼드 대회의 여정

1925년 스톡홀름 대회에서 1937년 옥스퍼드 대회까지 여정은 “생활과 노동”운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시기다.¹⁸⁾ 스톡홀름 대회에서 야기된 한 나라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고 앞으로의 일들을 도모하고자 참석자들

의 종교사회주의 진영에서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왜냐하면 이 대회의 참석자 중 사회주의자들이 상당히 적었고, 독일에서 온 참석자들 중에서 사회주의자나 종교사회주의자들이 없어 이 대회에서 결의된 기독교적 내용들이 실제 프롤레타리아들의 삶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Jähnichen, T., 앞의 책;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289 이하를 참조하라.

16) Rich, A., *Wirtschaftsethik*, (Gütersloh: 1980), 강원돈 역, 『경제윤리 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118.

17) 아르투어 리히는 그의 경제윤리의 기본 원칙들을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비롯된 인간성” 일컫는다. 위의 책, 118 이하.

18) 이형기, 앞의 책, 208 이하.

이 인식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계속위원회(Fortsetzungsausschuss)’를 설치하는 것이었다.¹⁹⁾ 이 위원회의 기능은 다양한 하부 위원회(Kommission)들이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계속위원회의 많은 일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e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를 창설하는 것이었다.²⁰⁾ 이에 앞서 스톡홀름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교회적 차원에서 국제 사회윤리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실제로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창설에 대한 중요성은 나탄 죄더블럼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아마도 대회(스톡홀름 대회)의 지속적인 일들 중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일 것입니다.”²¹⁾

19) 계속위원회의 조직은 5개의 분과(유럽 대륙, 영국, 미국, 정통교회 그리고 선교지역의 신생교회)와 6개의 하부위원회(언론위원회, 청년위원회, 신학자위원회, 역사교과서를 위한 위원회, 재정위원회 그리고 연구소를 위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역할을 위해서는 Keller, A., *Die Fortsetzungsarbeit der Stockholmer Weltkirchenkonferenz, Life and Work, Studien und Dokumente, Heft 1, Internationales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in Genf*, (Zürich: 1929) 10 이하를 보라.

20) 이와 같은 견해로는 Jähnichen, T., 앞의 글; *Die "Soziale Markirtschaft" und ihre protestantischen Ursprungslinien*, 18을 보라. 또한 계속위원회의 그 첫 번째 회의가 1926년 스위스 베른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결의된 것은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임연구원을 파견하는 것과 국제적 잡지를 출판하는 것이었다. Jähnichen, T., *Das SWI hatte Vorläufer: Anfänge sozialethischer Besimmung Das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in Genf*, Clauß en, U., *Moderne Zeiten-soziale Gerechtigkeit? 20 Jahre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Bochum: 1989), 33과 Weiße, W., *Praktisches Christentum und Reich Gottes: Die ökumenische Bewegung Life and Work 1919-1937*, (Göttingen: 1991), 409. 아울러 그 두 번째 회의는 1927년 영국의 윈체스터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구체적인 업무와 조직이 논의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Bulletin*, Nr. 1./Mai 1927, 5 이하 그리고 *Bulletin*, Nr. 3./November 1927, 61(독일어 공식 명칭은 *Bulletin des Internationalen Sozialwissenschaftlichen Instituts der Weltkirchenkonferenz für praktisches Christentum*이다.)을 참조하라.

21) Brief des Fortsetzungsausschusses und des Exekutivkomitees der Weltkirchenkonferenz,

1928년 국제 사회과학연구소가 제노바에 설립되고, 그것은 곧바로 “생활과 노동”의 운동의 “지속적인 일들을 위한 실제적인 현장”²²⁾ 되었다. 이로써 국제 사회과학연구소는 당시 제노바에 그 본부를 둔 다른 국제 기독교 단체들, 국제연맹, 국제노동기구 등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협업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특별한 업무는 1928년부터 계획해 온 사회적 교회의 국제 전문가회의(Internationale sozialkirchliche Expertenkonferenz)를 준비하고 실행시키는 것이었다.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제2차 세계선교대회에서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그와 유사한 연구실을 세계선교대회에 설치하겠다는 결의는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빠르게 산업화되는 선교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산업문제와 경제문제 앞에서 세계선교대회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5분과의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려준다.

“그와 같은 연구소는 선교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국제 기독교 협회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스톡홀름 협의회의 결과와 상응한 연구실이 확립되고, 산업과 사회 문제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²³⁾

이를 계기로 국제선교대회에 적극 참여한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올드햄(J. H. Oldham)은 1937년 옥스퍼드에 열린 “생활과 노동” 제2차 세계교회대회에 깊이 관여하고 신학적 기반을 놓는다.

이 장은 이미 언급한 바, 계속위원회에서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국제

vom 3. 12. 1926, *an die Kirchen*. Weiße, W., 앞의 책, 415에서 재인용.

22) Keller, A., 앞의 책, 15.

23) *Statement Jerusalem, Jerusalem Meeting Reports, Vol. V, Mission and Industrialism*, (London: 1929), 191.

사회과학연구소가 진행한 일들에 대한 역사적 서술임과 동시에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방법론의 두 번째 단계인 ‘간학문 간 대화’를 설정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톡홀름과 옥스퍼드 기간 중 1929년 세계 경제 공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계속위원회는 커다란 도전을 받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노력은 주목될 만하다. 이 장의 구성은 경제공황을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

1. 경제공황 이전의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활동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정보 제공에 관한 것이다. 국제 사회과학연구소는 각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와 사회 발전의 추진력들을 인식하고 교회 기관들과 다른 사회기관들의 일들을 사실부합적인 방법론으로 조망함으로써 당시 노동 조건 속에서의 다양한 기준들, 예컨대 노동자들의 생활상태, 임금수준, 여가선용 등과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알리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사회 기관들에서 형성될 수 있는 계획들, 사상들 그리고 윤리적 목표들을 규합해서 교회가 자신의 입장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정보 제공의 일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회기관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기관의 차원까지의 협력은 필연적이었다.

둘째는 사회연구로서, “사회적 사실의 인식과 학문적 성과 없이 교회의 사회적 행동은 존재할 수 없다”²⁴⁾는 전제 속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업, 교회의 추진력을 통한 윤리적 목표의 관철, 적절하고 보편적인 사회윤리의 형성, 사회윤리연구 방법론 설정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 효력을 갖도록 연구하는 것이 사회연구의 일들이다.

24) Keller, A., 앞의 책, 18.

마지막은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출판 활동이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일들의 지속가능을 목적으로 삼아 국제 사회과학연구소는 교회가 큰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의 연구 자료들과 학문적 논문들을 출판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서 국제 사회과학연구소가 시도한 것은 교회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실천적 행동을 취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다.²⁵⁾

이런 배경 속에서 국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잡지인 『스톡홀름(Stockholm)』²⁶⁾은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공식잡지였다. 이 잡지의 중요한 역할은 연구소의 연구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학문적 의견을 수렴하고 알리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 잡지가 가지는 중요성은 그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사에서 간과되어왔다. 이 잡지에 실린 글들 중 상당수가 경제문제에 관한 것이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서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⁷⁾ 왜냐하면 이 잡지에 신학적 경제윤리와 신학과 경제학간의 간학문적 대화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글들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의 목적은 간학문간 대화 내지는 학문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이유가 『스톡홀름』의 출판을 기념하기

25)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중요한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 Keller, A., *Soziale Programme der Kirchen und freier religiöser Organisation, Life and Work; Studien und Dokumente, Heft 2, Internationales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in Genf*, (Berlin-Sieglitz: 1930) 83 이하를 참조하라.

26) 이 잡지는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총무인 아돌프 켈러(Adolf Keller)가 편집을 맡아 1928년부터 1931년까지 출판한 잡지로서 영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구성된 다양한 논문들이 실려 있다. 이미 스톡홀름 대회 이후 출판하기로 결정된 이 잡지는 그러나 재정 문제로 인해 1928년에 비로소 출판되었다. 4년 동안 출판된 이 잡지를 엮어 출판한 것은 *Stockholm, Internationale sozial-kirchliche Zeitschrift*, (Göttingen: 1928-1931)이다.

27) 최근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연구 중에서 이 잡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경제학적 기술로서 주목할만 한 글은 W. 스틸레(Wolfram Stierle)의 박사학위 논문인 Stierle, W., 앞의 책이다. 스틸레는 『스톡홀름』에 실린 신학적이고 경제학적인 글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속에서 경제학적 이론들과 방법론과 추론했다.

위해서 영국 윈체스터 주교, 죄더블럼 그리고 독일의 주교인 이멜스(Ihmels)가 각각 작성한 서문에 잘 나와 있다.

“우리 계획의 목적은 하나님이 준 직무를 위해 교회의 구성원들의 정비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새롭게 고찰해야 하며,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위해 그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이 시스템을 고찰해야 하며, 이 시스템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법에 적합한지 또는 적합하지 않은지를 발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교회들이 이 연구들의 결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²⁸⁾

이와 조용해서 죄더블럼은 학문적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윤리학자, 경제학자, 노동운동에서의 지도자 그리고 경영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들의 경험과 연구들을 교환하도록 촉구했다. 이멜스는 하나님 나라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교회와 신학자들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특히 그때마다의 사실부합적인 것을 인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스톡홀름』에서 간학문적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경제공황 이후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의 활동

1929년 10월 25일 뉴욕 증시가 급격히 하락한 검은 금요일 이후, 계속위원회는 재정적 위기와 지도층의 통솔능력에 따른 재편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²⁹⁾ 이와 상응해서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던 “생활과 노동”운동의

28) The Right Rev. the Lord Bishop of Winchester, *Leading Voices, Stockholm 1928*, 29.

29) 제노바에서 “생활과 노동”운동의 계속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인 이돌프 켈리의 리더십에 의거

기구들이 제노바로 합쳐지게 되었다. 계속위원회는 새롭게 한스 쇤펠트(Hans Schönfeld)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 새로운 계속위원회가 다룰 주요 주제는 경제공황 이후 불어 닥친 실업문제가 교회에 주는 도전이었다.

계속위원회가 국제 사회과학연구소에 부여한 임무는 사회적 교회의 국제 전문가회의를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것이었다. 제1차 회의는 1928년에 계획되었고 1930년 영국 런던에서 “교회와 현대경제의 형성”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에큐메니칼 사회윤리 연구 활동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³⁰⁾ 이 회의에서 중요한 주제는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오용한 것으로 지칭된 대량 실업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실업을 당한 당사자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교회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함께 투쟁”³¹⁾하도록 촉구했다. 실업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 노동시간의 단축, 국가적 차원에서 노동창출 프로그램 설치 그리고 대량 구매력의 강화가 제시되었다. 이런 구체적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국제적 차원에서 규정들을 만드는 것이었다.

제도 정책적 논쟁의 측면에서 볼 때, 런던회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독점현상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왜냐하면 이 독점현상은 중국에 “경제기구의 권력이 소수의 손으로 집중되기”³²⁾때문이었다. 특히 자본의 공급자로서의 은행이 조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런

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한스 쇤펠트가 연구에 관한 총괄을 맡게 된다. Weiße, W., 앞의 책, 434.

30) 에큐메니칼 운동사 연구에서 이 런던회의는 주목받지 못한 회의였지만, 독일 보쿰(Bochum)대학의 경제윤리 전공의 중견 신학자 트라우고트 예니헨은 런던회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Jähnichen, T., 앞의 책; *Vom Industriemertan zum Industriebürger*, 291. 같은 견해로 Stierle, W., 앞의 책, 92 이하를 참조하라.

31) *Der Konferenzbericht der Londoner Tagung, Kirchen und moderne Wirtschaftsgestaltung, Konferenz kirchlicher Sozialarbeiter: Ökumenischer Rat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Studien und Dokumente Nr. 4*, (Genf: 1931), 10.

32) 위의 책, 15.

런던회의에서의 은행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생산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경제 자문기관들을 창설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경제현상에서 가능한 비관료적 조절을 목표로 삼았다.³³⁾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제현상으로서의 국가 개입에 대해서 런던회의는 소극적이었다. 오직 사회 정책적 분야에서만 국가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되었다.

런던회의는 그러나 경제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경제의 봉사성만이 강조되었다. 런던회의에 따르면 삶의 봉사로서 경제가 이해될 경우에만 참다운 경제이지 그렇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경제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노선과 추구방향을 발견함으로써 에큐메니칼 경제연구의 목표가 런던회의에서 확고히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이 회의가 시사 하는바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구체적 해결점을 제시한 런던회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³⁴⁾

1932년 스위스 바젤에서 제2회 사회적 교회의 국제 전문가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중심주제는 제1회와 마찬가지로 실업문제였다. 국제 사회 과학연구소는 공동의 방향설정을 위해 미리 세계 각 교회들이 실업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부탁했고 이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실업문제에 대한 책임이 교회에도 역시 존재한다는 고백과 더불어 세계의 교회와 경제학자들에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경제구조와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도록 바젤회의는 호소했다. 그러나 여기에 구체적 제안들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바젤회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세계 정치적 상황과 연관시켜 세계전쟁으로 인한 황폐함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자국의 경제 주권 실현을 위해 높은 관세정책을 제거하는 것보다

33) 위의 책, 20.

34) 이런 견해로 Jähnichen, T., 앞의 책; *Vom Industrienerten zum Industriebürger*, 292를 참조하라.

는 오히려, 채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채무의 최소화를 제안했다.³⁵⁾ 바젤회의에서도 여전히 경제의 원론적 목표의 틀에서 경제는 모든 인간에 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바젤회의가 경제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답을 주지 못하고, 윤리적 자의식과 도덕적 호소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적 틀에서 볼 때, 이미 스톡홀름과 런던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교회 간 내지는 세계 간의 협력의 사고는 바젤회의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실부합적인 것과 인간부합적인 것의 대화

위에서 언급한 기간 동안 계속위원회의 활동은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는 것이었다. 교회가 경제문제를 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경제학과 신학의 대화는 필수적인 것임이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는 『스톡홀름』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회의 국제 전문가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협력이라는 틀에서 아쉬운 점은 당시 세계사조 중 거대한 물결인 공산주의와 대화가 적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경제문제, 특히 실업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경제는 인류에 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개인의 성향에 호소하는 성향윤리적 색채가 강하지만, 국제적 투쟁 내지는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문제와 실업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거시적 수준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스톡홀름 대화와 비교했을 때, 그 단계가 도약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라는 사실부합적인 측면과 윤리라는 인간부합적인 측면 — 예를 들어 인류봉사를 위한 경제 — 을 고려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인간부합적인 것이 사실부합적인 것

35) 이 제안이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채무국가 중 하나인 독일에서의 개신교는 이 입장을 옹호했지만, 세계정세는 그렇지 못했다. 전쟁 채무에 대한 극복으로 1933년 독일에서 나치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문제에서 사실부합적인 것들이 수미일관 연구되고 사실부합적인 것에서 인간부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물음을 던짐으로써 “사실부합적인 것은 원칙적으로는 윤리와 무관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윤리가 규정하는 인간부합적인 것에 대한 책무와 조응한다”³⁶⁾는 것이 제시될 수 있다.

IV.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준 설정 - 제2차 옥스퍼드 「생활과 노동」 운동 세계교회대회와 제1차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

“교회, 민족 그리고 국가”라는 주제 하에 1937년 옥스퍼드에서 제2차 “생활과 노동”운동 세계대회가 열렸다. 옥스퍼드 대회의 준비과정 속에서 1933년 독일 령스도르프(Rengsdorf)에서 열린 국제전문가회의는 정치제도에 대한 담론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를 세긴 회의로 불린다. 왜냐하면 “생활과 노동”운동의 틀에서 “실업”에서 “사회제도의 문제와 교회”³⁷⁾라는 정치제도에 관한 관심으로 주제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다.³⁸⁾

경제제도에 대한 담론을 위해서 령스도르프 회의에서 에두아르트 하이만(Eduard Heimann)과 프리드리히 카렌베르크(Friedrich Karrenberg)의 서

36) Rich, A., 앞의 책, 85.

37) Rengsdorf, 1933 *Die Kirche und das Problem der Wirtschaftsordnung: Ökumenische Studienkonferenz Rengsdorf*, 8.-15. März 1933, AÖRK, L+W, Genf D 280, 24 Box 1.

38) 이런 변화의 중심에 독일의 정치변화가 서 있다. 1933년 독일에서 전체주의 국가의 표상인 민족사회주의적 독일 노동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 그들의 연정파트너와 함께 다수당이 되었고, 독일제국 수상에게 수권법이 부여되었다. *Ursachen und Folgen: Vom deutschen Zusammenbruch 1918 und 1945 bis zur statlichen Neuordnung Deutschlands in der Gegenwart IX*, (Berlin), 출판년도 알 수 없음, 53이하.

로 배치된 의견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 하이만은 시장경제 외에 계획경제적 요소를 첨가시키는 새로운 경제제도를 대변했다. 국가적 계획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진행된 공장의 합리화 조치들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확대 사이의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이만은 역설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업의 의미가 극복될 수 있고 노동에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하이만은 이것을 “인간적 사회주의”라고 지칭했다.³⁹⁾ 이에 반해 카렌베르크는 자유주의적 전통을 토대로 경제현상에서 개인들이 책임감을 가지는 사회윤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 국가가 경제에 간섭하는 행위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또 다른 형태의 개인 경영자로서 권력의 오용이라는 위험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⁴⁰⁾ 이런 배치된 의견에 참석자들은 그 어떤 일치도 없었다. 단지 이탈리아의 파시주의와 소련의 볼셰비키주의를 참석자들은 분명히 거부했다.

웁스도르프 회의 이후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 올드햄을 위시로 한 약 200여명의 전문가들은 옥스퍼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학문적 대화를 진행시켰다. 이런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옥스포드 대학은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에서 커다란 획을 긋게 되었다. 특히 “경제제도와 관계 속에서 교회, 민족 그리고 국가”의 주제 하에 모인 제 3분과는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에서 약진”⁴¹⁾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그 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의 커다란 세 가지 흐름이 합쳐져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다. 암스테르담 협의회에서 기존의 “생활과 노동” 운동은 제 3분과에서 다루어졌다. 이 분과의 보고서에서 1960년대 말까지 영향을 주었던 세계교회협의회 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사회”의 구상이 발표되었다.

39) Heimann, E., *Referat über Sozialismus*, in: AÖRK Genf, L+W, D 242, Box 1.

40) Karrenberg, F., *Thesen über den Liberalismus*, in: AÖRK Genf, L+W, D 242, Box 1.

41) Bennet, J. C., 앞의 글, 132.

이 장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의 제 3분과의 보고서와 ‘책임사회’의 구상을 중심으로 경제윤리적 입장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준 설정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옥스퍼드와 암스테르담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고, 기존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하나가 되는 과정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 경제윤리적 틀에서 암스테르담 협의회는 크게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방법론에 있어 기준을 설정할 경우, 암스테르담 협의회와 ‘책임사회’ 구상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옥스퍼드 대회 - 제 3분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 분과의 보고서는 6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6개의 부분을 요약함으로써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윤리적 입장이 밝혀질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경제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관심이 규정되었는데, 기독교의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두 번째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당시 경제제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 부분은 기독교적 삶의 이해와 배치된 당시 경제제도의 네 가지 모순점들이 묘사되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①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요소로 되어버리고 그래서 사회적 분열을 초래시키는 이윤추구의 상승이 기독교적 삶의 이해와 배치된다. ② 여기에 상응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팽창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 불평등은 인간들이 그들의 인격성이 확장되는 것을 포기해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고와 배치된다. ③ 조절이 불가능한 기득권자들의 경제 권력의 집중화 현상은 기독교적 사고와 배치된 것으로서 전제권력과 상응한 것이다. ④ 임금 노동의 시대적 형태가 기독교의 직업윤리관을 파괴하며, 실업에 대한 항시적 위험성은 결국 직업에 있어서 봉사정신을 망각시키게

한다.⁴²⁾ 신학적 토대 위에서 세워진 이 비판은 기독교인들에게 보다 나은 경제제도를 추구하도록 요구한다. 이 점은 네 번째 부분에서 나타난다.

보고서는 생산수단, 특히 최소한 기간산업과 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선택하는데, 이런 국가적 조정의 요소를 지지하는 입장은 자유주의적 입장과 배치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분명히 거부하는 경제제도 형태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표상이다. 이런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다섯 번째 부분, “경제제도에 대한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비롯된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들을 언급한다. 보고서는 사회 정책적 안전장치, 경제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공동결정권 그리고 지하자원의 사용에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고려를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부분은 교회와 개별적 기독교인들에게 고하는 구체적인 행동강령이다. 그것은 교회에게 수입원, 재정확보 그리고 재정지출의 방법론을 분명히 하도록 촉구하고, 사회적 실천을 위한 보다 특별한 방향성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노동과 예배의 밀접한 연관성을 요구한다. 개별적 기독교인들에게 보고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각자의 삶에서, 경제적 정치적 삶에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한다.⁴³⁾

경제윤리의 발전적 측면에서 위에서 제시된 규범들이 스톡홀름 대회와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이 규범들은 사회윤리적 판단 기준으로서 다시 말하면, 당시 경제제도를 철저히 분석하는 방법론적 성찰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게다가 옥스퍼드 대회에서 신학적 근거의 설정, 상황분석 그리고 사회윤리적 방향성 설정이 내적으로 밀접한 관계

42) 이 4가지 점들에 대해서는 Forschungsabteilung des Ökumenischen Rates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Oxford, 1937 Kirche und Welt in ökumenischer Sicht: Bericht der Weltkirchenkonferenz von Oxford über Kirche, Volk und Staat. Kirche und Welt, Studien und Dokumente, Zwölfter Band*, (Genf: 1938), 170-175를 참조하라.

43) 위의 책, 190-194.

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보고서는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다.

경제 제도적 틀에서 옥스퍼드 대회에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첫 번째 기준을 추론하기 전에 기준 설정에 대한 짧은 개요가 필요하다. 하나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체화되는 인간부합적인 것의 규범적 근거가 된다.” 인간부합적인 기준은 “진정한 인간성 일반을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기준은 “교의학적으로 선언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⁴⁴⁾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준설정은 기독교적인 실존과 인간적 실존의 총괄개념으로서 입증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준은 인간들이 경험되는 실존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궁극이전과 연관된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첫 번째 기준은 ‘극단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라고 말할 수 있다. 언급된 두 경제체제들을 옥스퍼드 대회가 거부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부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기준은 궁극이전의 것과 연관되어 단지 “상대적인 해결책”⁴⁵⁾일 뿐이다. 이 거부의 기준은 아르투어 리히의 두 번째 기준인 “비판적 거리의 기준”⁴⁶⁾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기존의 경제체제와 기독교에서 비롯된 인간성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비판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체제 속에서 그 때마다의 “인간부합적인 것의 기준들에 더 많이 부합하는 보다

44) 모든 인용은 Rich, A., 앞의 책, 198.

45) Rich, A., *Wirtschaftsethik Bd. 2: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Gütersloer: 1990), 강원돈 역, 『경제윤리 I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502.

46) 여기에 대해서 Rich, A., 앞의 책; 『경제윤리 I』, 206 이하를 참조하라. “비판적 거리”의 기준은 리히의 종말론적 입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경제 제도적 측면에서 이 “비판적 거리”의 기준에서 “어떤 경제적 질서체제도 그 기본구조가 무엇이든 궁극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리히에 따르면 자유주의의 경제정책과 사회주의의 그것도 “궁극적 의미를 부여받는 질서의 원리로 이해될 수 없다.” 모든 인용은 Rich, A., 같은 책, 208.

나은 정의”⁴⁷⁾가 추구될 수 있다.

2. 제1차 암스테르담 세계교회협의회 - “책임사회” 구상을 중심으로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주제가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⁴⁸⁾이라는 점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 후 냉전시대의 도래가 기독교에 있어 커다란 도전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가장 핵심은 “책임사회” 구상이다. 제 3분과 보고서는 “책임사회” 구상을 다음과 같이 강령적으로 밝히고 있다.

“책임사회란 자유가 정의와 공공질서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간의 자유가 되고 정치적 권위나 경제적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권력 행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회이다.”⁴⁹⁾

“책임사회” 구상이 밝히는 구체적 내용은 인간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는 경제 정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적 법치질서, 모든 인간이 자신들의 정부를 조절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민주질서의 실현이다. 이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정의와 동등한 자기실현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로 “책임사회” 구상이다.⁵⁰⁾

47) Rich, A., 위의 책, 212.

48) 이 주제설정 에 대해서 Barth, K., *Die Unordnung der Menschen und Gottes Heilsplan*, Lüpsen, F., *Amsterdamer Dokumente: Berichte und Reden auf die Weltkirchenkonferenz in Amsterdam 1948*, (Bethel: 1948), 146 이하에서 그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다.

49) Visser't Hooft, W. A.,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Genf: 1948), 100.

50) 위의 책, 99-102.

이런 “책임사회” 구상에서 기존의 경제제도에 대한 구상은 “제3의 길”로 인식된다. 이는 냉전시대의 도래로 인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첨예한 대립에 직면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념은 경제적 정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자유는 혁명이 완성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나타난다고 약속한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정의는 자유로운 경제에서 완전히 스스로 나타난다고 약속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이념이다. 정의와 자유 사이 쌍방 간 분열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 해결책들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속한다.”⁵¹⁾

올드햄에 의해 구상된 “책임사회”는 에큐메니칼 사회윤리의 핵심이다. 이는 암스테르담 총회의 주제와 관련시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시대적 한계 속에 있는 현실 세계의 상황을 서로 매개시키려는 의도였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서로 매개하려는 시도로서 사회윤리는 리히의 말을 빌려, 상대적인 의미를 단지 부정만 하지 않고, 궁극 이전 것을 상대적으로 수용하는,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것에 투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책임 있게 변혁하는 것이 “책임사회” 구상의 이론적 근거다. 이 매개의 논리가 바로 “중간공리”⁵²⁾ 방법이라 일컬어진다. “책임사회” 구상은 올드햄의 소위 “중간공리”에 그 이론

51) 위의 책, 104.

52) 올드햄의 중간공리의 방법론을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세계교회협의회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W. A. 피셔트 후프트(W. A. Visser't Hooft)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명쾌히 정리했다: (1) “교회가 사회적 위기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가장 진지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2) 교회가 사회 속에서 증인이 되고자 할 경우, 이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기본문제들을 규정하는 것; (3)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간학문적 고찰을 장려하고 특히 신학자들과 평신도들 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것; (4) 그 결과들을 연구와 그와 조응한 행동을 위해서 교회에 추천하는 것”이다. Visser't Hooft, W. A., *Oldham's Method in Abrecht's Hand, the ecumenical review*, N.1/1985, Vol.37, 66.

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두 번째 표준으로서 “책임사회” 구상이 이해될 수 있다. “책임사회” 구상은 다시 7개의 보다 구체적인 표준들로 나뉜다.⁵³⁾ 강원돈 교수는 이를 짧게 요약했다: (1) “양심의 자유, (2) 진리 추구의 자유, (3) 인간의 인간으로서의 존중, (4) 사람들 사이의 직접적 관계가 집단적 관계에 대해 우위를 갖는다는 생각, (5) 무책임한 권력의 제한과 권력 분배, (6) 내면성을 지닌 인간 주체의 독립성, (7)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 분담”.⁵⁴⁾ 여기에서 밝혀진 에큐메니칼 경제윤리 표준들은 그러나 결코 역사적 피안에 존재하지 않고 항상 새롭게 제시될 수 있는 열려있는 것들이다.

V. 나가는 말

경제윤리 방법론의 틀에서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 특히 “생활과 노동” 운동은 각 시대의 도전에 대한 응전이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경제공황,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시대의 도래까지 이어지는 20세기 초의 격변의 시기에 등장한 경제문제에 대한 교회의 노력이었다. 아울러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상대적인 인간 사회는 절대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궁극이전의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보다 개선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었다. 스톡홀름 대회에서 인간 실존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 자매애/형제애 그리고 정의”라는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인간부합적인 기본토대가 세워졌다. 이 기본토대

53) 올드햄은 제3분과에서 자신의 글 “책임사회”를 발표하면서 이미 세부적으로 7가지 중점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Oldham, J. H., *Eine verantwortliche Gesellschaft,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183-185을 참조하라.

54)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160.

위에서 경제학과 사회과학 등과 대화와 협업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사실부합적인 것들이 연구되고 인간부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옥스퍼드로의 도상 속에서 계속위원회의의 활동은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대회에서 첫 번째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준으로서 ‘극단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가 설정되었고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두 번째 기준으로서 “책임사회” 구상이 설정되고 그 보다 구체적인 7개의 기준들이 설정되었다.

참고문헌

1) 아카이브 자료와 에큐메니칼 문서들(시대순)

- Genf: Bibliothek und Archiv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150, Route de Ferney 1211 Genf 20(AÖRK) Bestand: Life and Work, (AÖRK, L+W).
- Edinburgh, 1910: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New York/Chicago/Toronto: 1910.
- Stockholm, 1925: Amtlicher deutscher Bericht, Deissmann, Adolf. *Die Stockholmer Weltkirchenkonferenz, Vorgeschichte. Dienst und Arbeit der Weltkonferenz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19–30. August 1925*. Berlin: 1926.
- Jerusalem, 1928: *Christianity and Growth of Industrialism in Asia, Africa and South America. Report of the Jerusalem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March 24th.–April 8th. 1928. Volume V*. London/Melbourne/Cape Town/ Bombay/Shanghai: 1928.
- London, 1930: *Die Kirchen und die moderne Wirtschaftsgestaltung, Konferenz kirchlicher Sozialarbeiter, London 1930, Ökumenischer Rat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Studien und Dokumente Nr. 4*. Genf: 1932.
- Basel, 1932: Internationales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Ökumenischer Rat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Die Kirche und die Weltwirtschaftskrisis – Schlußbericht der ökumenischen Studienkonferenz über Arbeitslosigkeit, Basel, 25.–29. 4. 1932*. Genf, 1932. 또한 참조: *Die Kirchen und die Weltwirtschaftskrise, Mitteilung, Heft 7*. Genf: 1932.
- Rengsdorf, 1933: *Die Kirche und das Problem der Wirtschaftsordnung. Ökumenische Studienkonferenz Rengsdorf, 8.–15. März 1933*. AÖRK, L+W, Genf D 280, 24 Box 1.
- Oxford, 1937: Forschungsabteilung des Ökumenischen Rates für Praktisches Christentum, *Kirche und Welt in ökumenischer Sicht, Bericht der Weltkirchenkonferenz von Oxford über Kirche, Volk und Staat*. Kirche

und Welt, Studien und Dokumente, Zwölfter Band. Genf: 1938.

Amsterdam, 1948: Visser't Hooft, W. A. *Die erste Vollversammlung des Oekumenischen Rates der Kirche: Die Unordnung der Welt und Gottes Heilsplan, Bd. 5.* Genf: 1948.

2) 논문 및 단행본

강원돈. 『지구화 시대의 사회윤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백용기. 『WCC 창립 이전 세계 기독교대회 속에 나타난 한국 개신교 사회운동』.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46호, 2009 가을, 167-212.

이형기. 『에큐메니칼 운동사: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창립될 때까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Abrecht, P. *From Oxford to Vancouver, Lessons from Fifty Years of Ecumenical Work for Economic and Social Justice, the ecumenical review.* N.2/1988, Vol. 40, 147-168.

Barth, K. *Die Unordnung der Menschen und Gottes Heilsplan.* Lüpsen, F. *Amsterdamer Dokumente: Berichte und Reden auf die Weltkirchenkonferenz in Amsterdam 1948.* Bethel: 1948.

Bennet, J. C. *Breakthrough in Ecumenical Social Ethics, The Legacy of the Oxford Conference on Church, Community, and State(1937).* the ecumenical review. N.2/1988, Vol.40, 132-146.

Heimann, E. *Referat über Sozialismus.* in: *AÖRK Genf, L+W, D 242, Box 1.*

Karrenberg, F. *Thesen über den Liberalismus.* in: *AÖRK Genf, L+W, D 242, Box 1.*

Hübner, J. *Globalisierung-Herausforderung für Kirche und Theologie: Perspektiven einer menschengerechten Weltwirtschaft.* Stuttgart: 2003.

Jähnichen, T., *Das SWI hatte Vorläufer: Anfänge sozialetischer Besinnung Das Sozialwissenschaftliche Institut in Genf.* Claußen U. *Moderne Zeiten-soziale Gerechtigkeit? 20 Jahre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Bochum: 1989. 30-37.

Jähnichen, 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1848-1955)*.
Bochum: 1993.
- Jähnichen, T. *Die "Soziale Markirtschaft" und ihre protestantischen Ursprungslinien*. von Arbeitskreis Evangelischer Unternehmer in Deutschland e. V.(AEU), *60 Jahre Soziale Martwirtschaft. "...das Prinzip der Freiheit auf dem Marke mit dem des sozialen Ausgleichs zu verbinden"*. Karlsruhe: 2008.
- Jähnichen, T. *Wirtschaftsethik: Konstellationen - Verantwortungsebenen - Handlungsfelder*. Stuttgart: 2008, 9-28.
- Keller, A. *Die Fortsetzungsarbeit der Stockhlomer Weltkirchenkonferenz, Life and Work, Studien und Dokumente, Heft 1, Internationales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in Genf*. Zürich: 1929.
- Keller, A., *Soziale Programme der Kirchen und freier religiöser Organisation, Life and Work; Studien und Dokumente. Heft 2, Internationales Sozialwissenschaftliches Institut in Genf*. Berlin-Sieglitz: 1930.
- Nababan, S. *Mission as an Invitation to the Feast of Life*. 김동수 역. 『선교 생명 잔치로서의 초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 세계』 Vol. 239. 서울: 2009. 3-10.
- Raiser, K. *Wir stehen noch am Anfang: Ökumene in einer veränderten Welt*. (Gütersloh: 1994)
- Rich, A. *Wirtschaftsethik Bd.1: Grundlagen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ütersloh: 1987. 강원돈 역. 『경제윤리 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3.
- Rich, A., *Wirtschaftsethik Bd.2: Marktwirtschaft, Planwirtschaft, Weltwirtschaft*. Güterslor: 1990. 강원돈 역. 『경제윤리 II』.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 Stausberg, M, Söderblom, Krause G.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31*. Berlin/New York: 1977ff. 423-427.
- Stierle, W. *Chancen einer ökumenischen Wirtschaftsethik: Kirche und Ökonomie vor den Herausforderungen der Globalisierung* Frankfurt: 2001.
- Visser't Hoof, W. A. *Oldham's Method in Abrecht's Hand, the ecumenical revie*. N.1/1985, Vol.37. 3-9.
- Weiß e, W. *Praktisches Christentum und Reich Gottes: Die ökumenische*

234 『기독교사회윤리』 제19집

Bewegung Life and Work 1919-1937. Göttingen: 1991.

논문투고일 : 2010. 04. 21

심사개시일 : 2010. 05. 12

게재확정일 : 2010. 05. 30

• 국 문 초 록 •

최근 사회윤리적 담론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3년 부산에서 제10차 세계 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리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초창기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은 의미 있다고 본다.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인구에 회자되었던 경제 문제의 논의를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오늘날 소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된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을 찾기 위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기독교 경제윤리의 방법론을 연구한 것이다.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입장은 20세기 초의 에큐메니칼 운동들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운동들의 역사적인 재구성과 그 의미의 연구를 병행할 것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생활과 노동”운동에서 다루어 졌으며, 이에 대한 제1차 세계대회는 1925년 스톡홀름에서, 제2차는 1937년 옥스포드에서, 그리고 1948년 암스테르담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서는 제3분과에서 이루어졌다. 3번에 걸친 이 대회들과 협의회 속에서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방법론이 제시될 수 있다.

스톡홀름 대회에서 인간 실존의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 자매애·형제애 그리고 정의”라는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기본이 설정되었다. 이 기본 토대 위에서 경제학과 사회과학 등과 간학문적으로 대화하면서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사실부합적인 것들이 연구되고 인간부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옥스퍼드로의 도상 속에서 계속위원회와의 활동은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옥스퍼드 대회에서 첫 번째 에큐메니칼 경제윤리의 규준으로서 '극단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경제체제와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분명한 거부'가 설정되었고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두 번째 규준으로서 "책임사회" 구상이 설정되고 그 보다 구체적인 7개의 규준들이 설정되었다.

주제어 : 에큐메니칼 운동, 경제윤리, 경제문제, 생활과 노동, 책임사회
